

본 콘텐츠는 홈페이지 유료 상품의 일부입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 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요 각시 가는 허리 구뵈기며 날랜 부리 두루혀 이르되,

“양우(兩友)의 말이 불가하다. ㉠ 진주 열 그릇이나 켜 후에 구슬이라 할 것이니, 재단(裁斷)에 능소능대(能小能大)하다 하나 나 곧 아니면 작의(作衣)*를 어찌하리오. 세누비* 미누비 저른 솔 긴 옷을 일우미 나의 ㉡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 척 부인의 자혀 내고 교두 각시 버혀 내다 하나 내 아니면 공이 없으려든 두 벗이 무삼 공이라 자랑하냐요.”

청홍 각시 얼굴이 붉으락프르락하야 노 왈,

“세요야, 네 공이 내 공이라. 자랑 마라. 네 아모리 착한 체하나 한 솔 반 솔인들 내 아니면 네 어찌 성공하리오.”

감토 할미 웃고 이르되,

“각시님네, 위연만 자랑 마소. 이 늙인이 수말 적기로 아가시네 손부리 아프지 아니하게 바느질 도와 드리나니 고어에 운(云), ㉢ 하였으니, 청홍 각시는 세요의 뒤를 따라다니며 무삼 말 하시냐요. 실로 얼굴이 아까워라. 나는 매양 세요의 귀에 질리었으되 낮가죽이 두꺼워 견달만하고 아모 말도 아니 하노라.”

인화 낭재 이르되,

“㉣ 그대네는 다토지 말라. 나도 잠간 공을 말하리라. 미누비 세누비 놀로 하여 저가락같이 고으며, 혼솔이나 곧 아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이 고으리요. ㉤ 침재(針才) 용숙한 재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것도 내의 손바닥을 한번 씻으면 잘못된 흔적이 감초여 세요의 공이 날로 하여 광채 나나니라.”

울 낭재 크나큰 입을 벌리고 너털웃음으로 이르되,

“인화야, 너와 나는 소임이 같다. 연이나 인화는 침선 뿐이라. 나는 천만 가지 의복에 아니 참여하는 곳이 없고, 가증한 여자들은 ㉥ 하로 할 일도 열흘이나 구기여 살이 주역주역한 것을 내의 광둔(廣臀)으로 한번 스치면 굵은 살 가는 살 날날이 퍼지며 제도와 모양이 고와지고 더욱 하절(夏節)을 만나면 소님이 다사하야 일일도 한가지 못하리라. 의복이 나 곧 아니면 어찌 고으며 더욱 세답하는 년들이 게으러 풀 먹여 넣어두고 잠만 자면 브듯쳐 말린 것을 나의 광둔 아니면 어찌 고으며, 세상 남녀 어찌 반반한 것을 입으리오.

이러므로 작의공(作衣功)이 내 제일이 되나니라.” / 규중 부인이 이르되,

“칠우의 공으로 의복을 다스리나 그 공이 사람의 쓰

기에 있나니 어찌 칠우의 공이라 하리오.”

하고 언필에 칠우를 밀치고 베개를 돋우고 잠을 깊이 드니 척 부인이 탄식하고 이르되,

“매야할사 사람이오 공 모르는 것은 녀재로다. 의복 마를 제는 문져 찾고 일워 내면 자기 공이라 하고, 게으른 종 잠 깨오는 막대는 나 곧 아니면 못 칠 줄로 알고 내 허리 브러짐도 모르니 어찌 야속하고 노흠지 아니리오.” / 교두 각시 이어 가로대,

“그대 말이 가하다. 옷 말라 버힐 때는 나 아니면 못 하려마는 드나니 아니 드나니 하고 내어 던지며 양각을 각각 잡아 흔들 제는 토심적이고 노흠기 어찌 측량하리오. 세요 각시 잠간이나 쉬라 하고 다라나면 매양 내 탓만 너겨 내게 집탈하니 마치 내가 감춘 듯이 문고리에 거꾸로 달아 놓고 좌우로 고면하며 전후로 수험하야 연어 내기 몇번인 동 알리오. 그 공을 모르니 어찌 애원하지 아니리오.”

세요 각시 한숨짓고 이르되,

“너는커니와 내 일즉 무삼 일 사람의 손에 보채이며 요악지성(妖惡之聲)*을 듣는고. 각골통한(刻骨痛恨)하며, 더욱 나의 약한 허리 휘드르며 날랜 부리 두루혀 힘껏 침선을 돕는 줄은 모르고 마음 맞지 아니면 나의 허리를 브르질러 화로에 넣으니 어찌 통원하지 아니리오. 사람과는 극한 원수라. 값을 길 없어 이따감 손톱 밑을 질러 피를 내어 설한(雪恨)하면 조금 시원하나, 간혹한 감토 할미 밀어 만류하니 더욱 애답고 못 견디로다.” / 인화 눈물지어 이르되,

“그대는 데아라 아야라 하는도다. 나는 무삼 죄로 포락지형(炮烙之刑)*을 입어 붉은 불 가운데 낮을 지지며 굳은 것 깨치기는 날을 다 시키니 섭고 괴롭기 측량하지 못할레라.”

울 낭재 척연 왈,

“그대와 소임(所任)이 같고 옥되기 한가지라. 제 옷을 문지르고 먹을 잡아 들까부르며, 우겨 누르니 황천(皇天)이 덮치는 듯 심신이 아득하야 내의 목이 달아날 적이 몇 번이나 한 동 알리오.”

칠우 이렇듯 담논하며 회포를 이르더니 자던 여재 문득 깨쳐 칠우다려 왈,

“칠우는 내 허물을 그대도록 하느냐.”

감토 할미 고두 사 왈(叩頭謝曰),

“젊은 것들이 망녕도이 험이 없는지라 족하지 못하리로다. 저희들이 재죄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하야 원언(怨言)*을 지으니 마땅히 결곤(決棍)하암즉하되, 평일

깊은 정과 저희 조고만 공을 생각하여 용서하심이 옳을
가 하나이다.” / 여재 답 왈,

“할미 말을 좇아 물시(勿施)하리니, 내 손부리 성하미
할미 공이라. 꺾어 차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
니 금낭(錦囊)을 지어 그 가운데 넣어 몸에 진혀 서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할미는 고두 배사(叩頭拜謝)*하고 제봉(諸朋)은 참
안(慙顏)하야* 물러나리라.

- 작자 미상, 「규중칠우쟁론기(閩中七友爭論記)」

*작의: 옷을 짓는 일.

*세누비: 누빈 줄이 촘촘하고 고운 누비.

*요약지성: 요망하고 간악한 말. ‘나쁜 소리’를 뜻함.

*포락지형: 뜨겁게 달군 쇠로 살을 지지는 형벌.

*원언: 원망하는 말.

*고두 배사: 머리를 조아려 인사를 함.

*참안하야: 부끄러워.

1. 위 글을 ‘우리 고전 다시 읽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 적절한 문구는?

- ① 옛사람들의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명작
- ② 무관심과 소외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 ③ 이기심과 탐욕이 판을 치는 현대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명문
- ④ 자기 과시에만 들뜬 사람에게 자신의 태도를 뒤돌아보게 하는 고전
- ⑤ 물질적 욕망에 집착하는 오늘의 우리를 반성하게 하는 선인들의 예지

2. <보기>는 위 글을 읽고 쓴 감상문이다. 위 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규중 칠우 쟁론기’를 읽고
처음엔 제목을 보고 옛사람들의 딱딱한 글이려니 했었다. 그러나 읽어 내려가면서 ㉠바느질 도구를 이렇게 재미있게 의인화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물에 붙여진 이름이 재미있었고, 또 각각의 역할이 대화를 통해 잘 드러나 있어 흥미로웠다. ㉡규중 칠우라는 이름 붙이기도 선비들의 문방사우와 대응된다는 글쓴이의 생각이 흥미로웠고, ㉢바느질 도구를 여성의 이름으로 의인화한 점에서 필자가 여성임이 분명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사물의 특성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교훈적 의도까지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가전체(假專體)’문학의 특징까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지나침일까? ㉤바느질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개성 있는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갈등을 중심으로 배치한 구성에서 이러한 글이 소설의 모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제13과장 신할아버지와 미알할미놀이

신할아버: (도포를 입고, 꽃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등장하여) 웬 사람이 이렇게 흰 차일을 친 듯 많아? 예전에 하던 짓거리나 하여 볼까? (노래로) ㉠아이들아 산대굿을 다 보았느냐? 탈 쓴 팔십 노인 나도 보자. 나도 옛그제는 청춘이더니 흥안백발 늙은이가 되었구나. 쳐다보니 깊고 큰 골짜기와 수많은 봉우리요, 굽어보니 흰 모래땅이로구나. ㉡흰 구름과 푸른 시냇물이요, 황혼은 유룩한데, 적막강산이 여기로구나. (노래를 부르고 나서 한숨을 쉬며) 아- 하.

미알할미: (산대놀이를 구경하며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낸다.)

신할아버: (미알할미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 무엇이 앞에서 곰실곰실 움직이나 했더니 청개구리 밑으로 실뱀이 쫓아다니듯 무엇 하러 늙은 것이 쫓아왔나? 그 모습 대단히 창피하네. ㉢떡동구리, 솔, 부등가리 같은 그릇은 다 어떻게 하고 나왔나?

미알할미: (지팡이를 번쩍 들어 한 곳을 가리킨다.)

신할아버: 본래 똑똑하니까 건넛마을 김 동지한테 맡겼어?

미알할미: (고개를 끄덕인다.)

신할아버: 송아지와 개 새끼는 어찌했나? 오! 구장한테 맡겼어?

미알할미: (고개를 끄덕인다.)

신할아버: 원래 모자란 사람은 아니니, 잘 알아서 하였겠지. 하지만 그것도 젊었을 때나 쓸모 있지, 지금은 쓸모가 없어. 자네도 늙고 나도 늙었으니 우리 이별이나 한번 해 볼까?

미알할미: (고개를 끄덕인다.)

신할아버: 아, 이것 보게. 하지 말자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네. 할 수 없다. (노래로) 죽어라 죽어라, 제발 덕분에 죽어라. 너 죽으면 나 못 살고, 나 죽으면 너 못 살라? 제발 덕분에 죽어라. 옥단춘이가 죽었으랴? 제발 덕분에 죽어라. 두 손뼉을 척척 치며, 노란 머리를 박박 뜯고서, 제발 덕분에 죽어라.

미알할미: (신할아버의 노래를 듣고 분한 마음에 손뼉을 딱딱 치며, 머리를 박박 뜯고 슬피 울고 난 뒤, 독약을 먹고 땅에 쓰러지면서 배 위에다 지팡이를 놓고 죽는다.)

신할아버: (사라진 미알할미를 찾으며) 이것 보게, 마누라가 없어졌네. 어디로 갔을까? 나는 정에 겨워 그런 말을 한 것인데, 이놈의 마누라가 달아났으니, 어디로 갔을까? 한술밥을 먹던 개라도 나가면 찾는다는데, 수십 년이나 같이 산 마누라가 없어졌으니 아니 찾을 수 있나? (놀이판을 돌면서 마누라를 찾는다.) 마누라, 마누라, 어디로 갔나? 마누라, 마누라, 어디로 갔나? (노래로) 마누라, 마누라, 어디로 갔나? 만수산 넘어 송림촌으로 갔나? ㉣영천수 맑은 물에 귀를 씻으러 갔나? 상산에 숨어 살던 네 늙은이 바둑 훈수를 갔나? 옛날 초나라 항우와 병법을 의논하러 갔나?

(땅에 쓰러져 있는 미알할미를 보고 놀라며) 이고- 이것 보게, 거리 부정 났구나. 우리 마누라가 죽었구나. ㉤팔십 먹은 늙은놈이 이게 무슨 팔자냐. 이놈의 마누라가 여기서 죽었으니, 늙은놈이 훈순백결 단돈 한 푼 없고 이 모양을 당했으니 이 일을 어

짜하나. 자식이라고는 팔난봉 자식 하나 있는데, 이놈에 자식도 집 나간 지가 수삼 년이구나.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흑시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뜨물에도 배가 든다고 한번 찾아볼까? 이놈이 여기서 구경하고 있을까? (놀이판을 돌면서) 애, 도끼야, 도끼야, 애, 도끼야, 여기 있느냐?

(중략)

신할아버: 애, 앉아서 울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너의 누이가 하나 있는데, 잣골에서 살다가 먼짓골로 갔느니라. 네가 빨리 가서 데리고 오너라.

도끼: 어떤 제밀한 놈이 상을 당한 상제보고 사람의 죽음을 알리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갔다 오시오.

신할아버: 네 말이 옳다마는 늙은 내가 갈 수 있느냐? 젊은 놈인 내가 속히 가서 데리고 오너라.

도끼: 알겠소. 갔다 오겠소.(제7과장에서 왜장녀* 역할을 하던, 왜장녀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을 보고) 여보, 누님.

도끼누이: 거 누구냐?

도끼: 내가 도끼요.

도끼누이: 깡귀라고?

[A] 도끼: 내가 도끼라고요.

도끼누이: ㉞ 대패라고?

도끼: 이거 뭐, 우기면 뭐가 생기냐? 내가 도끼라고요.

도끼누이: 요새는 너 도무지 안 오더니, 왜 왔니? 네가 왔지만 이제는 단돈 한 푼도 없다. 전에는 돈 백돈 천 냥씩이나 가져갔지만 이제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도끼: 누님-, 누님-. 내가 온 것은 돈을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 부음 전하러 왔소.

도끼누이: 부음이라니 무슨 부음이란 말이나?

도끼: 어머니가 산대굿 구경을 하다가 죽었소.

도끼누이: 이놈아, 콩으로 메주를 쑤대도 곧이들리지 않는다.

(중략)

도끼누이: 아이고, 어머니. 정말 돌아가셨소? 어찌자는 말이오! 전에는 어머니 얼굴이 흰 분가루 같더니,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이 흑임자 다식처럼 시커멓게 되었소그러. 약이나 좀 써 봤소?

신할아버: 약도 쓸 새가 없어서 못 썼다.

도끼누이: 그래도 약이나 좀 써 보지요. (약 같은 것을 미알할미 입에 넣자, 미알할미가 일어나서 도끼누이를 데리고 들어간다.*)

신할아버: 애, 도끼야.

도끼: 네.

신할아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여기 아는 친척도 없고 단돈 한 푼 없이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나. 우리가 돈이 있으면 지노귀굿이라도 할 텐데. 돈이 어디 있느냐? 우리끼리 굿이나 해 주자.

도끼누이: 그리합시다.

(피리, 해금, 대금의 삼재이가 ㉠ 노랫가락 장단을 친다. 도끼누이가 무당 역할을 하며 굿을 한다.)

도끼누이: (노래로) 바람이 월궁의 달월이성이요, 일광지성마누라 바라명실로 나리오. 이 터전 이 집안에 사람마다 다른 성씨 열에 열 명이 다니시더라도 덕도 탈도 보지 아니하시던 영부정 가망*에 산 간데 그늘이요, 용 계신 데 소(沼)로다. 소이라 깊건마는 모래 위에 해소로다. 마누라 영검 술을 깊이 몰라. 국이야 국이건마는 저 마당에 전이로다. 시절은 시절이오나 양전 마마님 시절이로다. 세상에 나홀로 있다고 한들 낮이야 낮이로다. 노양 신선의 초넋이야. 낮일랑 낮반에 담고, 신의 신체는 관에 모셔 세상에 나오신 망제님 놓고 갈까. 어이히히 웃자 초가망 이가망에 삼가망이 아니시냐? 좋다, 전물도 가망이요, 말게라 오신 가망 설게 받아 오신 가망, 사람마다 다른 성씨 열에 열 명이 다니시더라도 덕도 탈도 보지 않으시던 영부정 가망이 적적히 놓고 가시오.

[B]

- 작자 미상, 「양주 별산대놀이」

*왜장녀: 몸집이 크고 엄치없는 짓을 서슴없이 잘하는 여자를 가리킨다. 앞의 과장에서 왜장녀는 자신의 딸 애사당을 목중에 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다.

*미알할미가 ~ 들어간다.: 여기에서 '미알할미의 퇴장'은 '미알할미의 죽음'을 뜻한다. 이후 '도끼누이'는 다시 등장하여 무당 역할을 한다.

*가망: '신(神)'의 고어인 '감'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한다. 무속 신앙에서 상당히 높은 신으로 여겨진다.

3. 위 글을 토대로 이와 같은 글의 성격을 추리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제 공연시, 관객들의 극중 개입은 통제된다.
- ② 실제 공연시, 사실적인 무대 장치가 필요 없다.
- ③ 당대 사회에 대한 서민들의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 ④ 음악과 춤을 이용한 종합 예술의 성격을 지닌다.
- ⑤ 음악을 통해서 재담(才談)의 내용이 나누어진다.

4. ㉠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고전극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무대와 객석의 엄격한 구분이 없다.
- ②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가 돋보인다.
- ③ 익살과 과장적 표현을 활용하여 풍자성을 드러낸다.
- ④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의 구분으로 극적 환상을 조성한다.
- ⑤ 재담마다 춤과 음악이 어울려 축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 저는 정말 망루 위에 올라갔었어요.

나: 그럴 리 없어. 넌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라. 덧붙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고 횡설수설할 때부터 난 걱정스러웠다. 제발, 이리 떼가 없다는 소린 하지도 말아라.

다: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 높은 곳엘 올라가면 이리 떼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나: 애야, 자꾸만 우기지 마라. 나는 이 황야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구. 그런데, 사흘밖에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잘 안다구 그러니?

가: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 북을 두드린다. '다'는 어느 때와는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그리고 담요를 벗어 네모반듯하게 갠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중략)

다: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구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구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 촌장: 난 알고 있지.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덧붙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덧붙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

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구,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촌장: 뭐라구?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떼? 그게 뭐냐? 있지도 않는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 놓구,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구, 양철 북도 두들기구,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르지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다: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러구 함께 외치세요.

촌장: 그래, 외치마. / 다: 아, 이젠 됐어요!

촌장: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구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떼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 다: 뭘 망설이시죠?

촌장: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낼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망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구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 다: 살인이라고요?

촌장: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찌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애,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 다: 아니에요, 그건!

촌장: 아니라구?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 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촌장: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구,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테구,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애,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 다: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구 싶어요.

촌장: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구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구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촌장: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

하는 파수꾼 '다'를 꺼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중략)

나: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촌장: 마을 사람들이지요. / 나: 마을 사람들이요?

촌장: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극중 시간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은 황야에 위치한 마을이다.
- ③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준다.
- ④ 등장인물들은 서로에게 협력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중심 갈등은 '파수꾼 나'와 '파수꾼 다' 사이에 나타난다.

6. 위 글의 □팻말□과 □딸기□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딸기'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한 파수꾼에게 촌장이 제공하는 보상을 뜻한다.
- ② '팻말'은 촌장이 지난날을 돌아보며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팻말'은 명분 뒤에 숨겨진 '딸기'라는 실리를 촌장이 차지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 ④ '팻말'은 이리 떼라는 위협으로부터 '딸기'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⑤ '딸기'는 '팻말'이라는 금기와 이리 떼라는 위협 아래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나타낸다.

S# 89. 염전 주막 안

동호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천가는 술상을 치우고 있다.

동호: 목 좀 축일 수 있겠소?

천가: 막걸리는 갖다 놓은 지가 며칠 돼서 좀 안 좋을 것인데, 소주가 어떻소?

동호: 소주도 괜찮아요. 저녁 요기도 같이 좀 부탁합니다.

천가: 이 골이 초행길이신 게라우? / 동호: 예, 그래서 하룻밤 묵어가고 싶소만.

천가: 요새 밤을 자고 가신 손님들이 통 없어 놔서, 잠자리도 험할 틈디.

내실 쪽 문이 열리며 송화가 들어간다.

동호: 그런 걱정은 마시오. 참 이 집에 소리하는 아낙이 있다던데.

천가(소리): 예, 있지요. / 동호: 소리 좀 청할 수 있겠소?

천가: 소문 듣고 오셨소? / 동호: 예.

천가: 글썄, 요새는 여간해서 소리를 안 하디. 내 잠깐 물어봐야겠소. (방문을 열고) 어쩔란가, 소리 좀 듣고 싶디는디…….

S# 90. 인서트

어스름에 잠긴 염전 전경.

S# 91. 염전 주막 방 안

천가가 문을 열어 주면 송화가 방으로 들어가 앉는다. / 동호, 송화를 뚫어져라 바라본다. 천가, 문을 닫는다.

송화의 B.S.*

동호: 소리를 쫓아 남도 천지 안 돌아본 데가 없는 위인이오. 소리만 있어 주면 이대로 앉아 밤이라도 새우겠소.

송화: ㉠ 들을 만한 데도 없이 천하기만 한 소리요.

동호(소리): 소문을 듣고 찾아온 터이니 사양치 말고 좀 들려주시오.

송화, 자세를 고쳐 앉는다.

동호: (북을 앞으로 잡아끌며) 북을 잡아 본 지 오래돼서……. 장단이나 맞을는지 모르겠소.

동호, 북을 둥둥 친다.

송화: 그때의 심청이는 부친 눈을 띄울라고 남경 장사 선인들께 삼백 석에 몸이 팔려 만경창파를 떠날 적에 북을 두리둥 두리둥 둥둥 두리둥 둥둥 둥둥. 여보시오, 심 낭자 물때 늦어 가니 어서 급히 물에 들어라. 심청이 이 말을 듣더니 뱃전 안에 엮드려져 아이고 아버지 심청은 죽사오나 아버지는 눈을 떠 천지 만물을 보옵시고 날 같은 불효 여식을 생각지 마옵소서. 나 죽기 싫잖으나 혈혈단신 이내 몸이 누게 의지한단 말이냐.

(중략)

S# 92. 인서트

밤 깊은 염전 전경.

송화(소리): 이때의 심 황후는 눈먼 부친의 신세 한탄을 듣더니 심 황후 거동 봐라.

S# 93. 염전 주막 방 안

동호 O.S.* 송화.

송화: 이 말이 지듯 마듯 산호 주렴을 걸쳐 버리고 버선발로 우루루루 아이고 아버지.

(송화 얼굴)

송화: 심 봉사 이 말을 듣고 먼눈을 희번덕거리며 에이 이거 웬말이냐. 누가 날더러 아버지라고 허여.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무남독녀 외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름 삼 년인데 아버지라니 누구여.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어서 나를 보옵소서.

소리하는 송화. / 북 치는 동호. / 송화. / 동호. / 소리하는 송화. / 북 치는 동호.

동호 O.S. 송화. / 송화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동호.

S# 94. 염전 주막 안 (아침)

문이 열리고 천가가 밖을 내다본다. 송화는 뒤에 앉아 있다.

S# 95. 염전 길

동호,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다.

천가(소리): 저 사람이 자네가 늘 기다리던 동생인가?

송화(소리): 예. 제 소리가 저 사람의 북장단을 만났을 때 대번에 동생인지 알아챘지요. 옛날 제 아버 솜씨 그대로였어요.

S# 96. 염전 주막 안

천가: 어쩐지 심상치 않더라니. 헨디 그렇게도 기다리던 사람끼리 왜 서로 모른 척하고 헤어졌단 말인가?

송화: ㉠ 한을 다치고 싶지 않아서였지요.

천가: 무슨 한이 그렇게도 깊이 맺혔간디 풀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헤어졌단 말이여?

송화: 우리는 간밤에 한을 풀어냈어요. / 천가: 어떻게?

송화: 제 소리하고 동생의 북으로요. / 천가: 어쩐지 임자 소리가 예전하고 썩 다르다 했더니마는…….

- 이청준 원작·김명곤 각색, 「서편제」

*B.S.(Bust Shot): 인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슴을 중심으로 한 상반신에 해당하는 화면 크기, 또는 그 장면을 포착한 것을 통칭함.

*O.S.(Over the shoulder Shot): 대화 장면에 주로 사용되는 미디어 쇼트로, 한 인물의 어깨 너머로 상대방 모습을 포착한 장면.

7. 이 글을 영화로 만들어 광고 포스터를 만들려고 한다.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포스터 문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통극에 한 맺힌 가족의 비극! 함께 감동을 느껴보세요.

② 최고의 감독과 배우가 엮어낸 최고의 감동!

③ 한 장면도 놓칠 수 없는 흥미진진한 반전의 묘미

④ 한 맺힌 선을 속에 어우러지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

⑤ 판소리로 한을 승화시킨 예술혼의 정수!

8. 다음은 위 시나리오의 원작인 이청준의 소설 '서편제'이다. 소설 서편제와 영화 서편제의 서술상의 차이점을 바르게 지적하지 못한 것은?

<보 기>

이 날도 물론 마찬가지로였다.

이 날 밤도 그는 어느 새 안타깝게 그를 찾아 해매는 사내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버릇처럼 어디론가 그것에서 멀어지려고 숨이 차도록 다급한 발걸음을 끝없이 재촉해 가고 있었다.

"이제 그만하고 목을 좀 쉬게."

사내가 마침내 제풀에 힘이 파한 얼굴로 여인을 제지하고 나선 것은 그러니까 전혀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었던 셈이다. 사내는 이제 얼굴빛이 참혹할 만큼 힘이 빠져 있었다.

"그래 여자는 그럼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비정스런 아버를 어떻게 말하던가?"

몇 잔째 거푸 술잔을 비우고 난 사내가 이윽고 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여인에게 물어 왔다.

소설 '서편제'	영화 '서편제'
① 서술자가 존재	- 서술자가 없음
② 서술자에 의한 산문 표현	- 대사와 지시문 표현
③ 서술자에 의한 인물의 직접 제시	- 영상 장면을 통한 인물의 간접 제시
④ 서술자에 의한 상세적 진술에 의한 장면 제시	- 영상으로 장면 제시
⑤ 인물 성격과 구성의 제한적	- 인물 성격과 구성의 자유로움

[앞부분의 줄거리] 산간벽촌의 동막골 부락민들은 국군인 현철과 상상이 전하는 전쟁 발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던 중 국군과 미군 조종사, 그리고 부락민이 함께 있는 촌장의 집으로 인민군 낙오병 처성, 영희, 택기가 들이닥친다.

S# 22. 조종사가 누워 있는 방 N.* / INT.*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밖이 궁금한 조종사, 부상당한 몸을 간신히 움직여 머리로 문을 밀어낸다.
겨우 열려진 틈으로 밖을 내다본다. "저건 또 뭐하는 짓들이지?"

평상 위에 부락민들이 죽 올라서 있는 이상한 행동을 보며 머리를 갸웃거리는 조종사.

S# 23. 다시 촌장 집 마당 N. / EXT.*

부락민들 사이사이로 간간이 보이는 적군의 모습들. 싸늘한 기운이 흐르고…….

영희: (㉠) 상위 동지. 아니 군대 없대서 왔는데 결정하는 것마다 와 이럽네까?

치성: (이를 악문다.) ……!

택기: 열 발 안쪽에 있습니다. 우린 셋이고 저게는 둘입니다. 확 까 치읍시다!

치성: 전사 동무, 그냥 내 뒤에 있으라우!

영희: 아새끼래 쫓랑거리며 일 맨들디 말구 가만 좀 이수라우.

상상: 수적으로 우리가 밀리는데 어떡해요? 그렇게 그냥 지나쳐 가자니까 왜 여기까지 와 가지구……. 난 되는 게 없어. 니미.

현철: (무섭게 인민군을 노려보다 소리 지른다.) 야!

인민군 셋 침묵. / 마을 사람들 인민군과 국군을 번갈아 보다가…….

달수: (인민군들에게) 안 들려요? 부르는 거 같은데…….

달수 처: (현철에게) 우리한테 말해요. 전해 줄 테니.

치성: ㉡ 와? 방아쇠에 손가락 집어넣었으면 땡겨야지. 다른 볼일 있네?

영희: 상위 동지. 거 괜히 세계 나가디 마시랴요. 우린 총알도 없는데…….

현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제대로 한번 붙자!

상상: 미쳤어요? 수적으로 밀린다니까.

현철: 죄 없는 부락 사람들 피해 주지 말고 일단 나가자!

석용: 우리 때문이면 괜찮아요.

촌장: (지긋이) 석용아…….

치성, 자신의 빈총이 의식됐는지 고민하다 이를 악물고 수류탄을 빼 든다.

치성: 내 말 잘 듣으라우! 괴뢰군 아새끼나 부락 사람이나 조금만 허튼짓했다 그 즉시 직살하는 거야! 지금 한 말 허투루 딛디 말라!

영희와 택기도 눈치챘다. 옆으로 총을 집어 던지고 모두 수류탄을 꺼내 든다.

부락민들 치성의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

저 수군거리고만 있다.

치성: 뭐 이런 것들이…… 야 말 같디 않네! (버럭) 전체 손 버쩍 들라우!

부락민들 서로 눈치를 보다 하나둘 손 올린다. 왼손을 드는 사람, 오른쪽 손을 드는 사람.

현철의 소총 가늠자로 보이는 흥분한 치성의 얼굴. 옆으로 팬*하면 손에 들린 수류탄이 보인다. 무슨 이유에선지 불안한 표정이 되는 현철.

[중략 부분의 줄거리] 연합군이 동막골을 적진으로 오인해 폭격하려 한다. 인민군과 국군은 동막골 주민들을 구하고자 미군 스미스를 연합군 기지로 보내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짜 기지를 만들어 폭격을 유도하는 작전을 펼친다. 이 작전이 성공하여 연합군은 가짜 기지에 폭격을 가하는데, 영희와 상상이 폭탄과 총에 맞아 죽는다.

S# 122. 산등성 N. / EXT.

그들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거대한 포탄 밑에서 서로를 보는 세 사람. 치성, 현철, 택기.

그렇그렇 눈물 맺힌 눈으로 ㉢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주인공들. “㉢ 우리 잘한 거지?”

S# 123. 동막골 N. / EXT.

산 너머 먼 하늘에 섬광이 일고 있다. 신비한 듯 보고 있는 동막골 사람들.

멍한 표정의 김 선생. 뒤돌아서며 욕지거리를 하는 노모. 표정 없이 보는 촌장.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뛰어다니는 평화로운 동막골.

S# 124. 숲 어딘가 N. / EXT.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들풀을 쥐어 뜯으며 ㉣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스미스.

그 모습을 보는 한국군 2.(F.O.)

S# 125. 산등성 아침 EXT. (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

간밤에 내린 눈으로 전날 밤의 치열했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간혹 허수아비만이 비죽 튀어나와 있다.

질게 깔린 안개.

안개 속에서 점차로 드러나는 형태들. 수색 나온 토벌대다.

폭격 지점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군화발들.

문득, 그들 중 누군가의 시선. 눈 속에 파묻힌 인민군

군복이 얼핏 보인다.

그런데 그 옆에는 국군의 군복도 보인다.

알 수 없다는 듯 가웃거리는 그의 표정에서 카메라 서서히 빠져 공중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나비 다섯 마리가 스윽 날아오른다.

현철(소리): 우리가 이긴 거…… 맞죠?

치성(소리): 고럼. 완전히 대승이디. 하하하.

상상(소리): 나 솔직히 아까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노을이 딱 지는데 미치겠더라구.

택기(소리):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했다고 생각되지비?

상상(소리): 도망갔으면 자세 안 나오지.

영희(소리): 아새끼래, 아까 우는 거 다 봐서야…….

- 장진, 「웰컴 투 동막골」

*N.: 밤(Night) 장면.

*INT.: 실내 장면.

*EXT.: 실외 장면.

*팬(PAN.):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카메라를 좌우로 움직이는 촬영 기법.

9. 이와 같은 글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화 촬영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장면 단위로 글이 전개된다.
- ③ 장면의 전환이 비교적 용이하다.
- ④ 시·공간적 제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⑤ 서술자가 사건 전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0. 이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철은 인민군에게 강한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 ② 현철은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려 한다.
- ③ 치성은 긴박한 대치 상황 속에서 국군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④ 상상은 인민군과 대치하게 된 상황을 현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⑤ 택기는 국군에 대한 두려움으로 겁에 질려 치성의 뒤로 숨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답> ④ 이 글은 바느질에 필요한 여러 도구의 용도를 여성의 섬세한 시각으로 포착한 수필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한 벌의 옷을 완성하기까지는 그 과정에 여러 바느질 도구가 조화와 협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기 과시에 열을 올리는 사람에게 경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답> ⑤ 어떤 글을 읽고 감상문을 쓴다는 것은 그 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내린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내용 요소와 형식 요소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은 수필로서, 규중 여인이 사용하는 바느질 도구의 의인화, 협동과 조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훈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바느질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제시했다거나, 소설의 모태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3) <답> ① 우리 나라 전통 민속극의 경우, 실제 공연에서는 관객들의 극중 개입이 자유로운 편이다.

4) <답> ① ㉠은 무대와 객석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일치하는 가면극의 특성을 잘 보여 주는 부분이다.

언어 유희나 익살, 과장적 표현은 쓰이지 않았으며(②, ③), ④는 서양극의 특성이다. ⑤는 우리 전통극의 전체적인 특성이다.

5) <답> ③

파수꾼 다가 마을에 전한 쪽지 내용이 촌장과 파수꾼 다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①극 중의 시간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② 중심배경은 마을로부터 떨어진 망루이다. 파수꾼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마을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④ 파수꾼 다와 파수꾼 나·촌장 사이의 갈등이 드러난다. ⑤ 중심 갈등은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촌장 사이의 갈등이다.

6) <답> ③

가상의 적인 이리 떼를 내세워 마을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명분을 내세워 그 결과물로 딸기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① 파수꾼의 본연의 임무는 이리 떼를 지키는 것이고 딸기는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다. ② 팻말은 마을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적이 필요하다는

거짓정보를 상징한다. ④ 팻말은 있지도 않은 이리떼를 통해 마을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어 체제를 유지하려는 비열한 방법을 나타낸 것이지 공동체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⑤ 거짓된 정보에 이용당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지 희망은 아니다.

7) <답> ⑤

포스터에 실려야 될 문안은 작품의 주제이다. 이 작품의 주제를 잘 드러낸 것은 ⑤번이다.

8) <답> ⑤

9) <답> ⑤

시나리오는 소설과 달리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으며,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내용이 전개된다.

10) <답> ⑤

국군과 인민군의 대치 상황에서 겁에 질린 것은 영희이다. 택기는 오히려 수적으로 유리하다며 국군과 싸우려 하고 있다.

① 현철은 인민군에게 총을 겨누고 있으며 인민군을 무섭게 노려보다 소리를 지른다. ③ 치성은 국군과 대치하다 자신들의 총에 총알이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를 악물고 수류탄을 꺼내 들고 있다. ④ 상상은 그냥 지나쳤으면 여기까지 와서 인민군과 대치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냐며 현철에게 불평하고 있다.